



Coverage Report

2018. 4. 18

PR House Co., Ltd.



Coverage Result

- 총 21 건의 기사가 확인되었으며, 2 건의 기획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렸고 국내 주요 매체 포함 19 건 보도자료가 온라인에 게재됨

기획기사

No.	게재 날짜	기사 제목	매체
1	2018-04-18	베트남 '현금 없는 사회' 가속화...한국 IT 기업, 현지 금융망 구축 나서	중앙일보(지면)
2	2018-04-18	[비즈스토리] 베트남 '현금 없는 사회' 가속화 ... 한국 IT 기업, 현지 금융망 구축 나서	중앙일보(온라인)

보도자료

No.	게재 날짜	기사 제목	매체
1	2018-03-29	국내 IT 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MOU 체결	중앙일보
2	2018-03-29	국내 IT 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나서	전자신문
3	2018-03-29	국내 결제전문 IT 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결제 시장 발전 주도한다	세계일보
4	2018-03-29	국내 IT 기업 알리엑스, 하나카드와 함께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서울경제
5	2018-03-29	알리엑스-하나은행-베트남 나파스, 국가 경제 기간망 구축 MOU	연합뉴스
6	2018-03-29	알리엑스, 베트남 나파스와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MOU 체결	뉴스 1
7	2018-03-29	국내 IT 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MOU 맺어	국민일보
8	2018-03-29	국내 IT 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영 결제 중계기업 나파스와 MOU 체결	일간 스포츠
9	2018-03-29	알리엑스, 하나카드와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아이뉴스 24

No.	게재 날짜	기사 제목	매체
10	2018-03-29	알리엑스, 베트남 나파스와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MOU 맺어	SBS CNBC
11	2018-03-29	알리엑스-하나카드,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아이티 데일리
12	2018-03-29	알리엑스-하나카드,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한다	이데일리
13	2018-03-29	알리엑스-하나카드,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EBN
14	2018-03-29	국내 IT 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나서	베타뉴스
15	2018-03-29	국내 결제전문 IT 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공동포스 사업 참여	데일리 그리드
16	2018-03-29	국내 결제전문 IT 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MOU 체결	일간 리더스경제
17	2018-03-29	결제전문 IT 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데일리 시큐
18	2018-03-30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인터페이스 뉴스
19	2018-03-30	국내 IT 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올포칩

매체	중앙일보(지면)
게재 날짜	2018-04-18
제목	베트남 '현금 없는 사회' 가속화...한국 IT 기업, 현지 금융망 구축 나서

베트남 '현금 없는 사회' 가속화... 한국 IT기업, 현지 금융망 구축 나서

(알리엑스)

알리엑스 Allix

국내 결제 전문 IT 기업인 알리엑스(Allix)가 베트남의 국가 결제 기간망을 구축하게 됐다. 지난달 28일, 알리엑스는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 기업인 나파스(NAPAS)와 베트남 전국의 비현금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포스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는 아직 현금 사용 비율이 높은 베트남 결제 시장에서 베트남 전역을 커버하는 통합 결제 서비스 기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해 카드 결제와 모바일 결제 등 비현금 결제 활성화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국가 사업을 한국의 전문 기업이 맡게 된다는 것이다. 해당 MOU는 나파스와 알리엑스간 공동포스 사업을 위한 본 계약을 다음달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알리엑스는 나파스와 함께 베트남의 비현금 통합 결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게 됐다.

베트남에 공동포스 시스템 보급

현재 베트남에는 27만여 대의 카드 단말기가 보급돼 있다. 시장 규모에 비하면 부족하다. 또 각 은행(베트남은 은행에서 단 카드 발급이 각각 단말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하나의 가맹점에 여러 은행의 단말기가 중복 설치돼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결제 인프라가 중복 투자되어 하는 구조로 각 은행에 투자 리스크로 작용해 공격적인 가맹점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돼왔다. 이 같은 실정에서 여러 은행에서 단일 단말기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포스'가 기획됐다. 현재는 하노이·호찌민·다낭 등 대도시 위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공동포스 네트워크는 베트남 전국에 걸쳐 다양하고 편리한 비현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프라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기업이 할인·마일리지·쿠폰 등 다양한 마케팅을 운영하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알리엑스는 2015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해 하노이에 거점을 구축하고 공동포스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왔다. 2년여 동안 베트남 중앙은행, 나파스 및 시중



알리엑스는 지난달 28일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 기업인 나파스와 베트남의 비현금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포스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나파스 Hung, Le Q 대표, 하나카드 정수진 대표, 알리엑스 박병권 대표(왼쪽부터)가 MOU 체결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알리엑스]

은행 등 현지 주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감을 구하는 노력을 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해 이번 공동포스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박병권 알리엑스 대표는 "이는 베트남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사업이다"면서 "한국의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보여주고 베트남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그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사례가 많다"면서 "결제 분야에서는 알리엑스가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표는 이번 MOU 체결과 관련해 알리엑스의 성공 비결에 대해 순리와 인내심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통했다고 밝혔다. 알리엑스도 베트남 진출 초기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현지 에이전트들을 통해 파트너 발굴, 주요 의사결정 지원을 신속히 진행하는 "지름길"을 기대했으나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박 대표는 "베트남은 상당히 합리적인 의사결정 프

로세스가 정착돼 있었다"면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단계를 밟아 공식적인 투트를 통해 알아온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 됐다"고 밝혔다. 맞반의 출장으로 많은 성과들이 무리는 조금하더라도 긴 호흡으로 현지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소통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카드 사용액, 지난해 70% 성장

이번 공동 포스 사업 계약의 주체로 알리엑스와 공동포스 사업을 진행할 나파스(NAPAS)는 베트남 결제 산업 효율 제고를 위해 중앙은행과 주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승인 중계 전담기업으로 결제 정보의 스위칭(Switching) 역할을 맡게 된다. 베트남 법률상 스위칭 기관은 하나-다인정하고 있어 나파스는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기업이다.

알리엑스는 이번 계약 당사자로서 베트남 전국에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게 되며, 베트남 시장에서 온라인·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 결

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베트남은 카드 가맹점 인프라 부족으로 ATM에서 현금 인출이 많이 사용됨에도 약 1억3000만 장의 카드가 발급됐고, 사용액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70% 이상 성장하는 등 최근에 성장세가 가속되고 있어 향후 공동포스를 통해 인프라가 확충될 경우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알리엑스는 국내 결제 전문 IT 기업으로 카드결제 관련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자적인 카드프로세싱 시스템을 구축해 카드 브랜드사와 직접 카드 승인 및 매입 업무를 진행해왔다. 또 선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해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추고 질 높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결제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알리엑스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해외카드 매입대행 사업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현지 은행이 카드 결제의 승인과 매입업무를 처리하고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같은 국제 브랜드사와의 결제대행 정상업무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알리엑스의 IPS 즉 통합 결제 시스템(Integrated Payment System)의 콘셉트는 단일한 인프라 공급자가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형 서비스 구조를 지향한다. 이 IPS 플랫폼과의 인터페이스만으로 베트남 전국에 동시에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베트남 공동포스 사업은 신도시를 설계하는 것과 유사하게 소비자 및 결제서비스 제공사의 니즈를 반영해 새로운 인프라를 설계할 수 있어 효율성과 확장성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케이스가 될 전망이다.

플랫폼형 IPS 채택으로 확장 용이

베트남은 최근 3년간 63%의 자산성장률과 6%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카드 이용률은 이 같은 경제 성장률에 못미치지 못하고 있다. 카드결제 인프라의 부족과 그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 불편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베트남 당국은 정부 주도하에 2020년까지 비현금결제 비율을 9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워 국내외 여러 기업과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베트남은 카드 가맹점 인프라의 부족으로 현금결제 비율이 높은 가운데서도 최근 5년간 연평균 발급액수가 34.5%, 사용금액이 26.6%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알리엑스는 이 같은 베트남 시장의 잠재력과 니즈를 확인하고 사업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알리엑스는 2013년 3월 설립했으며, 해외금융솔루션 개발과 서비스에서 선두에 서 있다. 카드프로세싱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매입대행업무,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MCP(Multi Currency Pricing), MCA(Multi Currency Acquiring)서비스를 제공한다. 2015년 11월 하나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일본,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해외카드 매입대행 사업 업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김승수 객원기자

kim.sungsoo@joongang.co.kr

매체	중앙일보(온라인)
게재 날짜	2018-03-29
제목	[비즈니스스토리] 베트남 '현금 없는 사회' 가속화 ... 한국 IT 기업, 현지 금융망 구축 나서

[비즈니스스토리] 베트남 '현금 없는 사회' 가속화 ... 한국 IT기업, 현지 금융망 구축 나서

[중앙일보] 입력 2018.04.18 00:02 | 5면 | [지면보기](#)



국내 결제 전문 IT 기업인 알리엑스(Alliex)가 베트남의 국가 결제 기간망을 구축하게 됐다. 지난달 28일, 알리엑스는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 기업인 나파스(NAPAS)와 베트남 전국의 비현금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포스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알리엑스 이는 아직 현금 사용 비율이 높은 베트남 결제 시장에서 베트남 전국을 커버하는 통합 결제 서비스 기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해 카드 결제와 모바일 결제 등 비현금 결제 활성화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국가 사업을 한국의 전문 기업이 맡게 된다는 것이다. 해당 MOU는 나파스와 알리엑스간 공동포스 사업을 위한 본 계약을 다음달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알리엑스는 나파스와 함께 베트남의 비현금 통합 결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게 됐다.



알리엑스는 지난달 28일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 기업인 나파스와 베트남의 비현금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포스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 했다. 나파스 Hung, Le Q 대표, 하나카드 경수진 대표,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왼쪽부터)가 MOU 체결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알리엑스]

베트남에 공동포스 시스템 보급

현재 베트남에는 27만여 대의 카드 단말기가 보급돼 있다. 시장 규모에 비하면 부족하다. 또 각 은행(베트남은 은행에서만 카드 발급)이 각각 단말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하나의 가맹점에 여러 은행의 단말기가 중복 설치돼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결제 인프라가 중복 투자돼야 하는 구조로 각 은행에 투자 리스크로 작용해 공격적인 가맹점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돼왔다. 이 같은 실정에서 여러 은행에서 단일 단말기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포스'가 기획됐다. 현재는 하노이·호찌민·다낭 등 대도시 위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공동포스 네트워크는 베트남 전국에 걸쳐 다양하고 편리한 비현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프라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기업이 할인·마일리지·쿠폰 등 다양한 마케팅을 운영하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알리엑스는 2015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해 하노이에 거점을 구축하고 공동포스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2년여 동안 베트남 중앙은행, 나파스 및 시중 은행 등 현지 주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감을 구하는 노력을 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해 이번에 공동포스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박병건 알리엑스 대표는 "이는 베트남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사업이다"면서 "한국의 기업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보여주고 베트남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그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사례가 많다"면서 "결제 분야에서는 알리엑스가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표는 이번 MOU 체결과 관련해 알리엑스의 성공 비결에 대해 순리와 인내심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은 것이 통했다고 밝혔다. 알리엑스도 베트남 진출 초기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현지 에이전트들을 통해 파트너 발굴, 주요 의사결정 지원을 신속히 진행하는 '지름길'을 기대했으나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박 대표는 "베트남은 상당히 합리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정착돼 있었다"면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단계를 밟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베트남 주요 파트너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온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 됐다"고 밝혔다. 몇번의 출장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긴 호흡으로 현지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소통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베트남에 공동포스 시스템 보급

현재 베트남에는 27만여 대의 카드 단말기가 보급돼 있다. 시장 규모에 비하면 부족하다. 또 각 은행(베트남은 은행에서만 카드 발급)이 각각 단말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하나의 가맹점에 여러 은행의 단말기가 중복 설치돼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결제 인프라가 중복 투자돼야 하는 구조로 각 은행에 투자 리스크로 작용해 공격적인 가맹점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돼왔다. 이 같은 실정에서 여러 은행에서 단일 단말기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포스'가 기획됐다. 현재는 하노이·호찌만·다낭 등 대도시 위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공동포스 네트워크는 베트남 전국에 걸쳐 다양하고 편리한 비현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프라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기업이 할안·마일리지·쿠폰 등 다양한 마케팅을 운영하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알리엑스는 2015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해 하노이에 거점을 구축하고 공동포스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2년여 동안 베트남 중앙은행, 나파스 및 시중 은행 등 현지 주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감을 구하는 노력을 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해 이번 공동포스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박병건 알리엑스 대표는 "이는 베트남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사업이다"면서 "한국의 기업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보여주고 베트남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그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사례가 많다"면서 "결제 분야에서는 알리엑스가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표는 이번 MOU 체결과 관련해 알리엑스의 성공 비결에 대해 순리와 인내심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은 것이 통했다고 밝혔다. 알리엑스도 베트남 진출 초기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현지 에이전트들을 통해 파트너 발굴, 주요 의사결정 지원을 신속히 진행하는 '지름길'을 기대했으나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박 대표는 "베트남은 상당히 합리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정착돼 있었다"면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단계를 밟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베트남 주요 파트너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온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 됐다"고 밝혔다. 몇번의 출장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긴 호흡으로 현지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소통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카드 사용액, 지난해 70% 성장

이번 공동 포스 사업 계약의 주체로 알리엑스와 공동포스 사업을 진행할 나파스(NAPAS)는 베트남 결제 산업 효율 제고를 위해 중앙은행과 주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승인 중계 전담기업으로 결제 정보의 스위칭(Switching) 역할을 맡게 된다. 베트남 법률상 스위칭 기관은 하나만 인정하고 있어 나파스는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기업이다.

알리엑스는 이번 계약 당사자로서 베트남 전국에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게 되며, 베트남 시장에 온라인·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베트남은 카드 가맹점 인프라 부족으로 ATM에서 현금 인출이 많이 사용되는데도 약 1억3000만 장의 카드가 발급됐고, 사용액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70% 이상 성장하는 등 최근에 성장세가 가속되고 있어 향후 공동포스를 통해 인프라가 확충될 경우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알리엑스는 국내 결제 전문 IT 기업으로 카드결제 관련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자적인 카드프로세싱 시스템을 구축해 카드 브랜드사와 직접 카드 승인 및 매입 업무를 진행해왔다. 또 선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해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추고 질 높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결제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알리엑스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해외카드 매입대행 사업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현지 은행이 카드 결제의 승인과 매입업무를 처리하고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같은 국제 브랜드사와의 결제대금 정산업무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알리엑스의 IPS 즉 통합 결제 시스템(Integrated Payment System)의 콘셉트는 단일한 인프라 공급자가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형 서비스 구조를 지향한다. 이 IPS 플랫폼과의 인터페이스만으로 베트남 전국에 동시에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베트남 공동포스 사업은 신도시를 설계하는 것과 유사하게 소비자와 결제서비스 제공사의 니즈를 반영해 새로운 인프라를 설계할 수 있어 효율성과 확장성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케이스가 될 전망이다.

플랫폼형 IPS 채택으로 확장 용이

베트남은 최근 3년간 63%의 자산성장률과 6%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카드 이용률은 이 같은 경제 성장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카드결제 인프라의 부족과 그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 불편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베트남 당국은 정부 주도하에 2020년까지 비현금결제 비율을 9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워 국내외 여러 기업과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베트남은 카드 가맹점 인프라의 부족으로 현금결제 비율이 높은 가운데서도 최근 5년간 연평균 발급매수가 34.5%, 사용금액이 26.6%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알리엑스는 이 같은 베트남 시장의 잠재력과 니즈를 확인하고 사업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알리엑스는 2013년 3월 설립됐으며, 해외금융솔루션 개발과 서비스에서 선두에 서 있다. 카드프로세싱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매입대행업무,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MCP(Multi Currency Pricing), MCA(Multi Currency Acquiring)서비스를 제공한다. 2015년 11월 하나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일본,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해외카드 매입대행 사업 업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김승수 객원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매체	중앙일보
게재 날짜	2018-03-29
제목	국내 IT 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MOU 체결

국내 IT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MOU 체결

[중앙일보] 입력 2018.03.29 17:00



국내 결제 전문 IT기업인 알리엑스(대표 박병건)는 29일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 기업인 나파스(NAPAS, 대표 Hung, Le Q) 및 하나카드(대표 정수진)와 베트남 전국의 비현금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포스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베트남 하노이 나파스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나파스' Hung, Le Q 대표, '하나카드' 정수진 대표,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

이번 MOU에는 5월까지 나파스와 알리엑스간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위한 계약을 완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베트남 결제시장 발전을 위한 3사간의 협력 추진 내용이 담겨있다. 알리엑스는 이번 MOU를 통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베트남에 국가 결제 기간망(공동포스 네트워크)을 구축하게 되며, 나파스와 함께 비현금 통합 결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베트남은 27만여 대의 카드 단말기가 보급되어 있어 시장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각 은행(베트남은 은행에서만 카드 발급)에서 각각의 단말기를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가맹점에 여러 은행의 단말기가 중복 설치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결제 인프라가 중복 투자되어야 하는 구조로 각 은행의 투자 리스크가 되어 공격적인 가맹점 확대의 제약 요인이 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단일 단말기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포스'가 기획되었다. 현재는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대도시 위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실정이다.

공동포스 네트워크는 베트남 전국에 다양하고 편리한 비현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프라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할인, 마일리지, 쿠폰 등 다양한 마케팅을 운영하는 기반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알리엑스는 2015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하노이 현지에 거점을 두고 공동포스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알리엑스는 2년여 간 베트남 중앙은행, 나파스 및 시중 은행 등 현지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감을 구하는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신뢰 구축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포스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게 되었다.

나파스와 알리엑스는 2018년 5월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동포스 인프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나카드는 알리엑스와의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본 사업 및 향후 베트남 내에서의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카드와 알리엑스는 지난 2015년에 해외 결제사업을 위한 '대형 금융기업과 결제 전문기업'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체결식에는 정수진 하나카드 대표이사, 나파스의 흥 레 큐 (Hung Le Q) 대표이사과 박병건 알리엑스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협약에 조인하였다.

나파스는 중앙은행과 주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 즉 스위칭 (Switching) 기업이다. 베트남 법률상 하나의 스위칭 기업만을 인정하고 있어 나파스가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기업이 된다. 나파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계약 및 협력 주체로서 새롭게 구축되는 결제인프라를 통해서 발생하는 결제정보의 스위칭 역할을 맡게 된다.

알리엑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의 계약 당사자로서 베트남 전국에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게 되며, 베트남 시장에 온라인,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국내 결제산업을 선도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드결제와 온라인, 모바일 결제 등 베트남 결제 산업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자 베트남 제일 교역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은 카드 가맹점 인프라의 부족으로 ATM에서 현금 인출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약 1억3천만장의 카드가 발급되었고, 사용액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70%이상 성장하는 등 최근에 그 성장세가 가속되고 있어 향후 공동포스를 통하여 인프라가 확충될 때 그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매체	전자신문
게재 날짜	2018-03-29
제목	국내 IT 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나서

국내 IT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나서

발행일 : 2018.03.29



<왼쪽부터 '나파스' Hung, Le Q 대표, '하나카드' 정수진 대표,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

국내 결제 전문 IT기업인 알리엑스(대표: 박병건)가 하나카드(대표: 정수진)와 함께 베트남의 국가 결제 기간망 구축 작업에 나선다. 알리엑스는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 기업인 나파스(NAPAS, 대표: Hung, Le Q)와 베트남 전국의 비현금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포스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지난 28일 하노이 나파스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는 정수진 하나카드 대표이사, 나파스의 흥 레 큐 (Hung Le Q) 대표이사와 박병건 알리엑스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협약에 조인하였다.

MOU에는 오는 2018년 5월까지 나파스와 알리엑스간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위한 계약을 완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베트남 결제 시장 발전을 위한 3사간의 협력 추진 내용이 담겨있다. 알리엑스는 본 체결을 통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베트남의 국가 결제 기간망(공동포스 네트워크)을 구축하게 되며, 나파스와 함께 비현금 통합 결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베트남은 27만여대의 카드 단말기가 보급되어 있어 시장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각 은행(베트남은 은행에서만 카드 발급)에서 각각의 단말기를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가맹점에 여러 은행의 단말기가 중복 설치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결제 인프라가 중복 투자되어야 하는 구조로, 각 은행의 투자 리스크가 되어 공격적인 가맹점 확대의 제약 요인이 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여러 은행에서 단일 단말기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포스'가 기획되었다. 현재는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대도시 위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실정이다.

공동포스 네트워크는 베트남 전국에 다양하고 편리한 비현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프라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할인, 마일리지, 쿠폰 등 다양한 마케팅을 운영하는 기반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왼쪽부터 '나파스' Hung, Le Q 대표, '하나카드' 정수진 대표,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

알리엑스는 2015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하노이 현지에 거점을 두고 공동포스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알리엑스는 2년여 간 베트남 중앙은행, 나파스 및 시중 은행 등 현지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감을 구하는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신뢰 구축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포스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게 되었다.

나파스와 알리엑스는 2018년 5월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동포스 인프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나카드는 알리엑스와의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본 사업 및 향후 베트남 내에서의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카드와 알리엑스는 지난 2015년에 해외 결제사업을 위한 '대형 금융기업과 결제 전문기업'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나파스는 중앙은행과 주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 즉 스위칭 (Switching) 기업이다. 베트남 법률상 하나의 스위칭 기업만을 인정하고 있어 나파스가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기업이 된다. 나파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계약 및 협력 주체로서 새롭게 구축되는 결제인프라를 통해서 발생하는 결제정보의 스위칭 역할을 맡게 된다.

알리엑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의 계약 당사자로서 베트남 전국에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게 되며, 베트남 시장에 온라인,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국내 결제산업을 선도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드결제와 온라인, 모바일 결제 등 베트남 결제 산업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자 베트남 제일 교역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은 카드 가맹점 인프라의 부족으로 ATM에서 현금 인출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약 1억3천만장의 카드가 발급 되었고, 사용액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70%이상 성장하는 등 최근에 그 성장세가 가속되고 있어 향후 공동포스를 통하여 인프라가 확충될 때 그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 대중 음악 한류는 이미 오래 전부터 크게 일고 있고, 지난 1월 박항서 감독의 AFC U-23축구 준우승과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있다. 공동포스 사업을 통해 결제, 핀테크 분야에서의 한류가 한 차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종민 기자 (jongmin1@etnews.com)

매체	세계일보
게재 날짜	2018-03-29
제목	국내 결제전문 IT 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결제 시장 발전 주도한다

국내 결제전문 IT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결제 시장 발전 주도한다

하나카드와 함께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기업 나파스와 공동포스 사업 위한 MOU 체결

입력 : 2018-03-29 16:41:43 수정 : 2018-03-29 16:41:43 가 가



왼쪽부터 나파스 Hung, Le Q 대표, 하나카드 정수진 대표,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

국내 결제 전문 IT기업인 알리엑스(대표 박병건)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베트남의 결제 시장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 기업인 나파스(NAPAS, 대표: Hung, Le Q) 및 하나카드(대표: 정수진)와 MOU를 체결한 것이다. 알리엑스는 베트남 하노이 나파스 본사에서 체결도된 이번 MOU로 베트남 전국의 비현금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포스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본 MOU에는 오는 2018년 5월까지 나파스와 알리엑스 간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위한 계약을 완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베트남 결제 시장 발전을 위한 3사간의 협력 추진 내용이 담겨 있다.

알리엑스는 이번 체결을 통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베트남의 국가 결제 기간망(공동포스 네트워크)을 구축하게 되며 나파스와 함께 비현금 통합 결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베트남은 현재 27만여 대의 카드 단말기가 보급되어 있어 시장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각 은행(베트남은 은행에서만 카드 발급)에서 각각의 단말기를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가맹점에 여러 은행의 단말기가 중복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결제 인프라가 중복 투자되어야 하는 구조로, 각 은행의 투자 리스크가 되어 공격적인 가맹점 확대의 제약 요인이 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여러 은행에서 단일 단말기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포스'가 기획되었다. 현재는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대도시 위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공동포스 네트워크는 베트남 전국에 다양하고 편리한 비현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프라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할인-마일리지-쿠폰 등 다양한 마케팅을 운영하는 기반을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알리엑스는 2015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하노이 현지에 거점을 두고 공동포스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알리엑스는 2년여 간 베트남 중앙은행, 나파스 및 시중 은행 등 현지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하는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신뢰 구축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포스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나파스와 알리엑스는 2018년 5월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동포스 인프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카드는 알리엑스와의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본 사업 및 향후 베트남 내에서의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카드와 알리엑스는 지난 2015년에 해외 결제사업을 위한 '대형 금융기업과 결제 전문기업'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체결식에는 정수진 하나카드 대표이사, 나파스의 흥 레 큐 (Hung Le Q) 대표이사과 박병건 알리엑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나파스는 중앙은행과 주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 즉 스위칭 (Switching) 기업이다. 베트남 법률상 하나의 스위칭 기업만을 인정하고 있어 베트남에서 나파스가 유일의 승인 중계기업이 된다. 나파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계약 및 협력 주체로서 새롭게 구축되는 결제인프라를 통해서 발생하는 결제정보의 스위칭 역할을 맡게 된다.

알리엑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의 계약 당사자로서 베트남 전국에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그리고 베트남 시장에 온라인,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국내 결제산업을 선도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드결제와 온라인, 모바일 결제 등 베트남 결제 산업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자 베트남 제일 교역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은 카드 가맹점 인프라의 부족으로 ATM에서 현금 인출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약 1억3천만장의 카드가 발급 되었고, 사용액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70%이상 성장하는 등 최근에 그 성장세가 가속되고 있어 향후 공동포스를 통하여 인프라가 확충될 때 그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 대중 음악 한류는 이미 오래 전부터 크게 일고 있고, 지난 1월 박항서 감독의 AFC U-23축구 준우승과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있다. 공동포스 사업을 통해 결제, 핀테크 분야에서도 한 차례 한류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매체	서울경제
게재 날짜	2018-03-29
제목	국내 IT 기업 알리엑스, 하나카드와 함께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국내 IT기업 알리엑스, 하나카드와 함께 베트남 국가 결제 인프라 구축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기업 나파스와 공동포스 사업 위한 MOU체결

김동호기자 | 2018-03-29 15:56:53 | 사회이슈



왼쪽부터 나파스·Hung, Le Q 대표, 하나카드·정수진 대표, 알리엑스·박병건 대표

국내 결제 전문 IT기업인 알리엑스(대표: 박병건)는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 기업인 나파스(NAPAS, 대표: Hung, Le Q) 및 하나카드(대표: 정수진)와 베트남 전국의 비현금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포스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지난 28일 베트남 하노이 나파스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는 오는 2018년 5월까지 나파스와 알리엑스간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위한 계약을 완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베트남 결제 시장 발전을 위한 3사간의 협력 추진 내용이 담겨있다. 알리엑스는 본 체결을 통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베트남의 국가 결제 기간망(공동포스 네트워크)을 구축하게 되며, 나파스와 함께 비현금 통합 결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베트남은 27만여대의 카드 단말기가 보급되어 있어 시장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각 은행(베트남은 은행에서만 카드 발급)에서 각각의 단말기를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가맹점에 여러 은행의 단말기가 중복 설치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결제 인프라가 중복 투자되어야 하는 구조로, 각 은행의 투자 리스크가 되어 공격적인 가맹점 확대의 제약 요인이 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여러 은행에서 단일 단말기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포스'가 기획되었다. 현재는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대도시 위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실정이다.

공동포스 네트워크는 베트남 전국에 다양하고 편리한 비현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프라 역 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할인, 마일리지, 쿠폰 등 다양한 마케팅을 운영하는 기반을 제공하여 소비자 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왼쪽부터 '나파스' Hung, Le Q 대표, '하나카드' 정수진 대표,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

알리엑스는 2015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하노이 현지에 거점을 두고 공동포스 사업을 공격적 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알리엑스는 2년여 간 베트남 중앙은행, 나파스 및 시중 은행 등 현지 주요 이해 당사자들에게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감을 구하는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신뢰 구축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포스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게 되었다.

나파스와 알리엑스는 2018년 5월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동포스 인프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나카드는 알리엑스와의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본 사업 및 향후 베트남 내에서의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카드와 알리엑스는 지난 2015 년에 해외 결제사업을 위한 '대형 금융기업과 결제 전문기업'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체결식에는 정수진 하나카드 대표이사, 나파스의 흥 레 큐 (Hung Le Q) 대표이사과 박병건 알리엑 스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협약에 조인하였다.

나파스는 중앙은행과 주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 즉 스위칭 (Switching) 기업이다. 베트남 법률상 하나의 스위칭 기업만을 인정하고 있어 나파스가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 기업이 된다. 나파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계약 및 협력 주체로서 새롭게 구축되는 결제인프라를 통해서 발생하는 결제정보의 스위칭 역할을 맡게 된다.

알리엑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의 계약 당사자로서 베트남 전국에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게 되며, 베트남 시장에 온라인,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국내 결제산업을 선도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드결제와 온라인, 모바일 결제 등 베트남 결제 산업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자 베트남 제일 교역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은 카드 가맹점 인프라의 부족으로 ATM에서 현금 인출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약 1억3천만장의 카드가 발급 되었고, 사용액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70% 이상 성장하는 등 최근에 그 성장세가 가속되고 있어 향후 공동포스를 통하여 인프라가 확충될 때 그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 대중 음악 한류는 이미 오래 전부터 크게 일고 있고, 지난 1월 박항서 감독의 AFCU-23 축구 준우승과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있다. 공동포스 사업을 통해 결제, 핀테크 분야에서의 한류가 한 차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매체	연합뉴스
게재 날짜	2018-03-29
제목	알리엑스-하나은행-베트남 나파스, 국가 경제 기간망 구축 MOU

최신기사

알리엑스-하나은행-베트남 나파스, 국가 경제 기간망 구축 MOU

송고시간 | 2018/03/29 16:53



나파스 홍 레 규 대표, 하나카드 정수진 대표,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왼쪽순)가 베트남 국가 경제 기간망 구축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내 결제 전문 IT기업인 알리엑스(대표 박병건)가 지난 28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 기업인 나파스(NAPAS-대표 Hung, Le Q) 및 하나카드(대표 정수진)와 베트남의 국가 경제 기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나파스와 알리엑스 간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위한 계약을 완료하는 내용을 포함해 베트남 결제 시장 발전을 위한 3사 간의 협력 추진 내용을 담았다.

공동포스 네트워크는 베트남 전국에 다양하고 편리한 비현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프라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할인-마일리지-쿠폰 등 다양한 마케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나파스와 알리엑스는 오는 5월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동포스 인프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나카드는 알리엑스와의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본 사업 및 향후 베트남 내에서의 다양한 결제서비스를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나파스는 중앙은행과 주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베트남 승인 중계 즉 스위칭(Switching) 기업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결제 인프라를 통해서 발생하는 결제정보의 스위칭 역할을 맡게 된다.

알리엑스는 베트남 전국에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게 되며, 베트남 시장에 온라인·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 결제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국내 결제산업을 선도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드결제와 온라인·모바일 결제 등 베트남 결제산업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협력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하나카드와 알리엑스는 지난 2015년 해외 결제사업을 위한 '대형 금융기업과 결제 전문기업'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29 16:53 송고

매체	뉴스 1
게재 날짜	2018-03-29
제목	알리엑스, 베트남 나파스와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MOU 체결

알리엑스, 베트남 나파스와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MOU 체결

(서울=뉴스1) 김수경 기자 | 2018-03-29 16:08 송고



사진: 왼쪽부터 '나파스' Hung Le Q 대표, '하나카드' 정수진 대표,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 © News1

알리엑스가 베트남 나파스와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MOU를 체결했다.

국내 결제 전문 IT기업인 알리엑스(대표 박병건)는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 기업인 나파스(NAPAS, 대표 Hung Le Q) 및 하나카드(대표 정수진)와 베트남 전국의 비현금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포스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베트남 하노이 나파스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MOU에는 오는 5월까지 나파스와 알리엑스간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위한 계약을 완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베트남 결제 시장 발전을 위한 3사간의 협력 추진 내용이 담겨 있다.

알리엑스는 본 체결을 통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베트남의 국가 결제 기간망(공동포스 네트워크)을 구축하게 되며, 나파스와 함께 비현금 통합 결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베트남은 27만여 대의 카드 단말기가 보급되어 있어 시장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각 은행(베트남은 은행에서만 카드 발급)에서 각각의 단말기를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가맹점에 여러 은행의 단말기가 중복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결제 인프라가 중복 투자돼야 하는 구조로, 각 은행의 투자 리스크가 되어 공격적인 가맹점 확대의 제약 요인이 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여러 은행에서 단일 단말기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포스'가 기획되었다. 현재는 하노이, 호찌민, 다낭 등 대도시 위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실정이다.

공동포스 네트워크는 베트남 전국에 다양하고 편리한 비현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프라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할인, 마일리지, 쿠폰 등 다양한 마케팅을 운영하는 기반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알리엑스는 2015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하노이 현지에 거점을 두고 공동포스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알리엑스는 2년여간 베트남 중앙은행, 나파스 및 시중 은행 등 현지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감을 구하는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신뢰 구축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포스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게 되었다.

나파스와 알리엑스는 5월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동포스 인프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나카드는 알리엑스와의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본 사업 및 향후 베트남 내에서의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카드와 알리엑스는 지난 2015년에 해외 결제사업을 위한 '대형 금융기업과 결제 전문기업'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체결식에는 정수진 하나카드 대표이사, 나파스의 흥 레 큐(Hung Le Q) 대표이사와 박병건 알리엑스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협약에 조인하였다.

나파스는 중앙은행과 주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 즉 스위칭(Switching) 기업이다. 베트남 법률상 하나의 스위칭 기업만을 인정하고 있어 나파스가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기업이 된다. 나파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 계약 및 협력 주체로서 새롭게 구축되는 결제인프라를 통해서 발생하는 결제정보의 스위칭 역할을 맡게 된다.

알리엑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의 계약 당사자로서 베트남 전국에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게 되며, 베트남 시장에 온라인,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국내 결제산업을 선도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드결제와 온라인, 모바일 결제 등 베트남 결제 산업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자 베트남 제일 교역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은 카드 가맹점 인프라의 부족으로 ATM에서 현금 인출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약 1억3000만장의 카드가 발급되었고, 사용액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70% 이상 성장하는 등 최근에 그 성장세가 가속되고 있어 향후 공동포스를 통하여 인프라가 확충될 때 그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 대중 음악 한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크게 일고 있고, 지난 1월 박항서 감독의 AFC U-23축구 준우승과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있다. 공동포스 사업을 통해 결제, 핀테크 분야에서의 한류가 한 차레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News1

매체	국민일보
게재 날짜	2018-03-29
제목	국내 IT 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MOU 맺어

국내 IT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MOU맺어

베트남 국영 기업 나파스, 하나카드와 공동포스 사업 위해

입력 : 2018-03-29 17:39



사진 = (왼쪽부터) 나파스 Hung, Le Q 대표, 하나카드 정수진 대표,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

국내 결제 전문 IT기업인 알리엑스(대표 박병건)는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 기업인 나파스(NAPAS, 대표 Hung, Le Q) 및 하나카드(대표 정수진)와 베트남 전국의 비현금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포스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지난 28일 베트남 하노이 나파스 본사에서 지난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는 정수진 하나카드 대표이사, 나파스의 흥 레 큐(Hung Le Q) 대표이사와 박병건 알리엑스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협약에 조인하였다.

MOU의 골자는 오는 2018년 5월까지 나파스와 알리엑스간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위한 계약을 완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베트남 결제 시장 발전을 위한 3사간의 협력 추진하는 것이다. 알리엑스는 본 체결을 통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베트남의 국가 결제 기간장(공동포스 네트워크)을 구축하게 되며, 나파스와 함께 비현금 통합 결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베트남은 27만여대의 카드 단말기가 보급되어 있어 시장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각 은행(베트남은 은행에서만 카드 발급)에서 각각의 단말기를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가맹점에 여러 은행의 단말기가 중복 설치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결제 인프라가 중복 투자되어야 하는 구조로, 각 은행의 투자 리스크가 되어 공격적인 가맹점 확대의 제약 요인이 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여러 은행에서 단일 단말기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포스'가 기획되었다. 현재는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대도시 위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실정이다.

공동포스 네트워크는 베트남 전국에 다양하고 편리한 비현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프라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할인, 마일리지, 쿠폰 등 다양한 마케팅을 운영하는 기반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알리엑스는 2015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하노이 현지에 거점을 두고 공동포스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알리엑스는 2년여 간 베트남 중앙은행, 나파스 및 시중 은행 등 현지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하는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신뢰 구축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포스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게 되었다.

나파스와 알리엑스는 2018년 5월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동포스 인프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나카드는 알리엑스와의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본 사업 및 향후 베트남 내에서의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카드와 알리엑스는 지난 2015년에 해외 결제사업을 위한 '대형 금융기업과 결제 전문기업'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나파스는 중앙은행과 주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 즉 스위칭(Switching) 기업이다. 베트남 법률상 하나의 스위칭 기업만을 인정하고 있어 나파스가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기업이 된다. 나파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계약 및 협력 주체로서 새롭게 구축되는 결제인프라를 통해서 발생하는 결제정보의 스위칭 역할을 맡게 된다.

알리엑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의 계약 당사자로서 베트남 전국에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게 되며, 베트남 시장에 온라인,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국내 결제산업을 선도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드결제와 온라인, 모바일 결제 등 베트남 결제 산업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자 베트남 제일 교역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은 카드 가맹점 인프라의 부족으로 ATM에서 현금 인출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약 1억3천만장의 카드가 발급되었고, 사용액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70%이상 성장하는 등 최근에 그 성장세가 가속되고 있어 향후 공동포스를 통하여 인프라가 확충될 때 그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 대중 음악 한류는 이미 오래 전부터 크게 일고 있고, 지난 1월 박항서 감독의 AFC U-23 축구 준우승과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있다. 공동포스 사업을 통해 결제, 핀테크 분야에서의 한류가 한 차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매체	일간 스포츠
게재 날짜	2018-03-29
제목	국내 IT 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영 결제 중계기업 나파스와 MOU 체결

국내 IT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영 결제 중계기업 나파스와 MOU 체결

[일간스포츠] 입력 2018.03.29 16:29

글자크기 + -



[사진 = 왼쪽부터 '나파스' Hung, Le Q 대표, '하나카드' 정수진 대표,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

2018년 5월까지 베트남 비현금 결제 인프라 구축 위한 공동포스 사업 추진

국내 결제 전문 IT기업인 알리엑스(대표 박병건)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베트남의 비현금 통합 결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 수립에 참여한다.

최근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 기업인 나파스(NAPAS, 대표: Hung, Le Q) 및 하나카드(대표: 정수진)와 MOU를 체결한 것이다. 알리엑스는 베트남 하노이 나파스 본사에서 체결도된 이번 MOU로 베트남 전국의 비현금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포스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본 MOU에는 오는 2018년 5월까지 나파스와 알리엑스간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위한 계약을 완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베트남 결제 시장 발전을 위한 3사간의 협력 추진 내용이 담겨 있다.

알리엑스는 본 체결을 통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베트남의 국가 결제 기간망(공동포스 네트워크)을 구축하게 되며, 나파스와 함께 비현금 통합 결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베트남은 27만여 대의 카드 단말기가 보급되어 있어 시장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각 은행(베트남은 은행에서만 카드 발급)에서 각각의 단말기를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가맹점에 여러 은행의 단말기가 중복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결제 인프라가 중복 투자돼야 하는 구조로, 각 은행의 투자 리스크가 되어 공격적인 가맹점 확대의 제약 요인이 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여러 은행에서 단일 단말기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포스'가 기획되었다. 현재는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대도시 위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실정이다.



[사진= 왼쪽부터 '나파스' Hung, Le Q 대표, '하나카드' 정수진 대표,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

공동포스 네트워크는 베트남 전국에 다양하고 편리한 비현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프라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할인·마일리지·쿠폰 등 다양한 마케팅을 운영하는 기반을 제공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알리엑스는 2015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하노이 현지에 거점을 두고 공동포스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알리엑스는 2년여 간 베트남 중앙은행, 나파스 및 시중 은행 등 현지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감을 구하는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신뢰 구축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포스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게 되었다.

나파스와 알리엑스는 2018년 5월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동포스 인프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나카드는 알리엑스와의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본 사업 및 향후 베트남 내에서의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카드와 알리엑스는 지난 2015년에 해외 결제사업을 위한 '대형 금융기업과 결제 전문기업'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체결식에는 정수진 하나카드 대표이사, 나파스의 흥 레 큐 (Hung Le Q) 대표이사와 박병건 알리엑스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협약에 조인하였다.

나파스는 중앙은행과 주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 즉 스위칭 (Switching) 기업이다. 베트남 법률상 하나의 스위칭 기업만을 인정하고 있어 나파스가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기업이 된다. 나파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계약 및 협력 주체로서 새롭게 구축되는 결제인프라를 통해서 발생하는 결제정보의 스위칭 역할을 맡게 된다.

알리엑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의 계약 당사자로서 베트남 전국에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게 되며, 베트남 시장에 온라인,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국내 결제산업을 선도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드결제와 온라인, 모바일 결제 등 베트남 결제 산업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자 베트남 제일 교역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은 카드 가맹점 인프라의 부족으로 ATM에서 현금 인출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약 1억3천만장의 카드가 발급되었고, 사용액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70%이상 성장하는 등 최근에 그 성장세가 가속되고 있어 향후 공동포스를 통하여 인프라가 확충될 때 그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 대중 음악 한류는 이미 오래 전부터 크게 인기 있고, 지난 1월 박항서 감독의 AFC U-23축구 준우승과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있다. 공동포스 사업을 통해 결제, 핀테크 분야에서의 한류가 한 차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매체	아이뉴스 24
게재 날짜	2018-03-29
제목	알리엑스, 하나카드와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알리엑스, 하나카드와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 기업 나파스와 공동포스 사업 위해 MOU

2018년 03월 29일 오후 16:09

[아이뉴스24 조민성 기자]국내 결제 전문 IT기업 알리엑스(대표 박병건)는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 기업인 나파스(NAPAS, 대표 Hung, Le Q)와 베트남 비현금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포스' 사업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MOU는 하나카드(대표 정수진)와 공동으로 추진됐다. 체결식에는 정수진 하나카드 대표이사, 나파스의 흥 레 큐(Hung Le Q) 대표이사, 박병건 알리엑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 왼쪽부터 '나파스' Hung, Le Q 대표, '하나카드' 정수진 대표,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

알리엑스는 MOU 체결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베트남의 국가 결제 기간망(공동포스 네트워크)을 구축하게 되며, 나파스와 함께 비현금 통합 결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베트남은 카드단말기가 27만여대 보급돼 있어 시장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 각 은행(베트남은 은행에서만 카드 발급 가능)마다 각각의 단말기를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가맹점에 여러 은행의 단말기가 설치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결제 인프라가 중복 투자되어야 하는 구조로, 각 은행의 투자 리스크가 되어 공격적인 가맹점 확대의 제약 요인이 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여러 은행에서 단일 단말기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포스'가 기획됐다. 현재는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대도시 위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실정이다.

공동포스 네트워크는 베트남 전국에 비현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프라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할인·마일리지·쿠폰 등 다양한 마케팅을 운영하는 기반을 제공해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알리엑스는 2015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하노이 현지에 거점을 두고 공동포스 사업을 추진해 왔다. 나파스는 중앙은행과 주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 즉 스위칭 (Switching)기업이다. 베트남 법률상 하나의 스위칭 기업만 인정하고 있어 나파스가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기업이다. 나파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계약 및 협력 주체로, 새롭게 구축되는 결제인프라를 통해 발생하는 결제정보의 스위칭 역할을 맡게 된다.

알리엑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의 계약 당사자로, 베트남 전국에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을 책임지며, 베트남 시장에 온라인·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국내 결제산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드결제와 온라인·모바일 결제 등 베트남 결제 산업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베트남은 약 1억3천만장의 카드가 발급 되었고 사용액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70% 이상 성장하는 등 최근 성장세가 가속되고 있어 공동포스를 통하여 인프라가 확충될 때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조민성기자 mcho@inews24.com |

매체	SBS CNBC
게재 날짜	2018-03-29
제목	알리엑스, 베트남 나파스와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MOU 맺어



뉴스 > 시사

알리엑스, 베트남 나파스와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MOU 맺어

온라인 뉴스팀 기자 | 입력 : 2018-03-29 15:24 | 수정 : 2018-03-29 15:24



왼쪽부터 '나파스' Hung, Le Q 대표, '하나카드' 정수진 대표,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

국내 결제 전문 IT기업인 알리엑스(대표 : 박병건)는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 기업인 나파스(NAPAS, 대표 : Hung, Le Q) 및 하나카드(대표 : 정수진)와 베트남 전국의 비현금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포스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베트남 하노이 나파스 본사에서 지난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는 정수진 하나카드 대표이사, 나파스의 흥 레 큐 (Hung Le Q) 대표이사와 박병건 알리엑스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협약에 조인하였다.

MOU에는 오는 2018년 5월까지 나파스와 알리엑스간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위한 계약을 완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베트남 결제 시장 발전을 위한 3사간의 협력 추진 내용이 담겨있다. 알리엑스는 본 체결을 통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베트남의 국가 결제 기간망(공동포스 네트워크)을 구축하게 되며, 나파스와 함께 비현금 통합 결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공동포스 네트워크는 베트남 전국에 다양하고 편리한 비현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프라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할인, 마일리지, 쿠폰 등 다양한 마케팅을 운영하는 기반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현재 베트남은 27만여대의 카드 단말기가 보급되어 있어 시장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각 은행(베트남은 은행에서만 카드 발급)에서 각각의 단말기를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가맹점에 여러 은행의 단말기가 중복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결제 인프라가 중복 투자되어야 하는 구조로, 각 은행의 투자 리스크가 되어 공격적인 가맹점 확대의 제약 요인이 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여러 은행에서 단일 단말기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포스'가 기획되었다. 현재는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대도시 위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실정이다.

알리엑스는 2015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하노이 현지에 거점을 두고 공동포스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알리엑스는 2년여 간 베트남 중앙은행, 나파스 및 시중 은행 등 현지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하는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신뢰 구축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포스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게 되었다.

나파스와 알리엑스는 2018년 5월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동포스 인프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나카드는 알리엑스와의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본 사업 및 향후 베트남 내에서의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카드와 알리엑스는 지난 2015년에 해외 결제사업을 위한 '대형 금융기업과 결제 전문기업'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나파스는 중앙은행과 주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 즉 스위칭(Switching) 기업이다. 베트남 법률상 하나의 스위칭 기업만을 인정하고 있어 나파스가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기업이 된다. 나파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계약 및 협력 주체로서 새롭게 구축되는 결제인프라를 통해서 발생하는 결제정보의 스위칭 역할을 맡게 된다.

알리엑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의 계약 당사자로서 베트남 전국에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게 되며, 베트남 시장에 온라인,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국내 결제산업을 선도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드결제와 온라인, 모바일 결제 등 베트남 결제 산업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자 베트남 제일 교역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은 카드 가맹점 인프라의 부족으로 ATM에서 현금 인출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약 1억3천만장의 카드가 발급되었고, 사용액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70%이상 성장하는 등 최근에 그 성장세가 가속되고 있어 향후 공동포스를 통하여 인프라가 확충될 때 그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 대중 음악 한류는 이미 오래 전부터 크게 일고 있고, 지난 1월 박항서 감독의 AFC U-23축구 준우승과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있다. 공동포스 사업을 통해 결제, 핀테크 분야에서의 한류가 한 차레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입력 : 2018-09-29 15:24 | 수정 : 2018-09-29 15:24

매체	아이티 데일리
게재 날짜	2018-03-29
제목	알리엑스-하나카드,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알리엑스-하나카드,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기업 나파스와 공동 포스 사업 위한 MOU 체결



▲ (왼쪽부터) 흥 레 큐 나파스 대표, 정수진 하나카드 대표, 박병건 알리엑스 대표

[아이티데일리] 결제 전문 IT기업 알리엑스(대표 박병건)는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 기업 나파스(NAPAS, 대표 흥 레 큐) 및 하나카드(대표 정수진)와 베트남 전국의 비현금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 나파스 본사에서 체결된 이번 MOU에는 2018년 5월까지 나파스와 알리엑스 간 공동 포스 네트워크를 위한 계약을 완료하는 내용을 포함, 베트남 결제 시장 발전을 위한 3사 간 협력 추진 내용이 담겼다. 알리엑스는 MOU 체결을 통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베트남의 국가 결제 기간망(공동 포스 네트워크)을 구축하게 되며, 나파스와 함께 비현금 통합 결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알리엑스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은 27만여 대의 카드 단말기가 보급돼 있어 시장 규모에 비해 그 수가 매우 부족하고, 각 은행(베트남은 은행에서만 카드 발급)에서 각각의 단말기를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가맹점에 여러 은행의 단말기가 중복 설치돼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결제 인프라가 중복 투자돼야 하는 구조로, 각 은행의 투자 리스크가 돼 공격적인 가맹점 확대의 제약 요인이 돼 왔다. 이런 이유로 여러 은행에서 단일 단말기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 포스'가 기획됐다. 현재는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대도시 위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실정이다.

공동 포스 네트워크는 베트남 전국에 다양하고 편리한 비현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프라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할인, 마일리지, 쿠폰 등 다양한 마케팅을 운영하는 기반을 제공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알리익스는 2015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해 하노이 현지에 거점을 두고 공동포스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회사는 2년여간 베트남 중앙은행, 나파스 및 시중 은행 등 현지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하는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신뢰 구축과 협력을 통해 공동포스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파스와 알리익스는 2018년 5월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동포스 인프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나카드는 알리익스와의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이번 사업 및 향후 베트남 내에서의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카드와 알리익스는 지난 2015년에 해외 결제사업을 위한 '대형 금융기업과 결제 전문기업'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체결식에는 정수진 하나카드 대표, 흥 레 큐 (Hung Le Q) 나파스 대표와 박병건 알리익스 대표가 참석해 협약에 조인했다.

나파스는 중앙은행과 주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 즉 스위칭(Switching) 기업이다. 베트남 법률상 하나의 스위칭 기업만을 인정하고 있어 나파스가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 기업이 된다. 나파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계약 및 협력 주체로서 새롭게 구축되는 결제 인프라를 통해 발생하는 결제정보의 스위칭 역할을 맡게 된다.

알리익스는 이번 공동 포스 사업의 계약 당사자로서 베트남 전국에 공동 포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게 되며, 베트남 시장에 온라인,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하나카드는 국내 결제산업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드결제와 온라인, 모바일 결제 등 베트남 결제 산업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자 베트남 제일 교역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은 카드 가맹점 인프라의 부족으로 ATM에서 현금 인출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약 1억 3천만 장의 카드가 발급됐고, 사용액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70% 이상 성장하는 등 최근 그 성장세가 가속되고 있어 향후 공동포스를 통해 인프라가 확충될 때 그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는 게 알리익스의 분석이다.

알리익스는 이외에도 베트남에 대중음악 한류가 이미 오래전부터 크게 일고 있고, 지난 1월 박항서 감독의 AFC U-23 축구 준우승과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있어 공동 포스 사업을 통해 결제, 핀테크 분야에서의 한류가 한 차레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매체	이데일리
게재 날짜	2018-03-29
제목	알리엑스-하나카드,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한다

기업IT > IT/과학 > IT/인터넷

알리엑스-하나카드,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한다



김현아 기자 | 2018-03-29 11:14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기업 나파스와 공동포스 사업을 위한 MOU체결
2년여 베트남 현지화 노력 결실
하나카드, 알리엑스, 대기업-전문기업 상생 모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왼쪽부터 나파스 Hung, Le Q 대표, 하나카드 정수진 대표,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다. 알리엑스 제공

국내 결제분야 IT 기업인 알리엑스(대표: 박병건)가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 기업인 나파스(NAPAS, 대표: Hung, Le Q) 및 하나카드(대표:정수진)와 베트남 전국에 비현금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포스 사업 추진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2018년 5월까지 나파스와 알리엑스간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위한 계약을 완료하는 내용과 ▲베트남 결제 시장 발전을 위한 3년간 협력 추진 내용이 담겨 있다.

알리엑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 중인 베트남의 국가 결제 기간망(공동포스 네트워크)을 구축하게 되며, 나파스와 함께 비현금 통합 결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여러 카드 단말기로 불편한 베트남

베트남은 27만여 개의 카드 단말기가 보급돼 수량 자체가 부족할뿐 아니라 각 은행이 각각의 단말기를 운영해 불편하다.

이에 여러 은행에서 단일 단말기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포스'가 기획됐지만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대도시 위주에서만 가능한 실정이다.

그런데 이번에 3시간 제휴로 '공동포스' 사업이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할인, 마일리지, 쿠폰 등 다양한 마케팅을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나파스, 알리엑스, 하나카드 역할분담

알리엑스는 2015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해 베트남 중앙은행, 나파스 및 시중 은행 등과 협의해 신뢰를 쌓았고, 이번에 공동포스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었다.

나파스와 알리엑스는 2018년 5월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동포스 인프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알리엑스와의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본 사업 및 향후 베트남 내에서의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하나카드와 알리엑스는 2015년 해외 결제사업을 위한 '대형 금융기업과 결제 전문기업'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나파스는 중앙은행과 주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 즉 스위칭 (Switching) 기업이다. 베트남 법률상 하나의 스위칭 기업만을 인정하고 있다.

나파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계약 및 협력 주체로서 새롭게 구축되는 결제인프라를 통해서 발생하는 결제정보의 스위칭 역할을 맡게 된다.

알리엑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의 계약 당사자로서 베트남 전국에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게 되며, 베트남 시장에 온라인,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국내 결제산업을 선도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드결제와 온라인, 모바일 결제 등 베트남 결제 산업 전반에 대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핀테크분야 한류 기대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자 베트남 제일 교역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월 박항서 감독의 AFC U-23축구 준우승과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있다. 여기에 이번 공동포스 사업을 통해 결제, 핀테크 분야에서의 한류도 기대된다.

매체	EBN
게재 날짜	2018-03-29
제목	알리엑스-하나카드,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알리엑스-하나카드,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베트남 결제 시장 발전 위한 3社 협약... '공동포스 네트워크' 구현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기사더보기 +

등록 : 2018-03-29 10:38



▲ (왼쪽부터) 나파스 Hung Le Q 대표, 하나카드 정수진 대표,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

국내 결제전문 IT기업 알리엑스(AllieX)는 하나카드 및 베트남 국영 결제 중계기업 나파스(NAPAS)와 베트남 전국망 결제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관련 협약(MOU)을 하노이 나파스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5월까지 나파스와 알리엑스간 공동 네트워크 구축 계약을 완료하는 내용이다. 베트남 결제 시장 발전을 위한 3사간의 협력 추진 내용이 담겨있다.

알리엑스는 지난 2015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해 하노이에 거점을 두고 공동포스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알리엑스는 이번 체결을 통해 베트남의 국가 결제 기간망(공동포스 네트워크)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파스와 함께 비현금 통합 결제 서비스 모델을 수립한다.

베트남은 현재 27만여대의 카드 단말기가 보급돼 시장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각 은행(베트남은 은행에서만 카드 발급)에서 단말기를 운영중이다.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대도시만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실정이다.

나파스와 알리엑스는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하고 공동포스 인프라 개발에 착수한다. 하나카드는 알리엑스와 협력을 기반으로 본 사업 및 향후 베트남에서 다양한 결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하나카드와 알리엑스는 해외 결제사업을 위한 '대형 금융기업 결제' 협력안을 구축한 바 있다.

'알리엑스'는 2013년 3월 설립된 회사로 해외금융솔루션 개발·서비스 기업이다. 카드프로세싱 시스템 구축, 매입대행업무, 중국 위챗페이 승인중계, 모바일 결제 승인중계,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MCP(Multi Currency Pricing), MCA(Multi Currency Acquiring)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체	베타뉴스
게재 날짜	2018-03-29
제목	국내 IT 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나서

종합

국내 IT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나서

전소영 기자 ▾

기사

글꼴 + 글꼴 -

입력 : 2018-03-29 19:06:32

하나카드와 함께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기업 나파스와 공동포스 사업 위한 MOU 체결



왼쪽부터 '나파스' Hung, Le Q 대표, '하나카드' 정수진 대표,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

국내 결제 전문 IT기업인 알리엑스(대표 박병건)는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 기업인 나파스(NAPAS, 대표: Hung, Le Q) 및 하나카드(대표: 정수진)와 베트남 전국의 비현금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포스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베트남 하노이 나파스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본 MOU에는 오는 2018년 5월까지 나파스와 알리엑스간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위한 계약을 완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베트남 결제 시장 발전을 위한 3사간의 협력 추진 내용이 담겨 있다.

알리엑스는 본 체결을 통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베트남의 국가 결제 기간망(공동포스 네트워크)을 구축하게 되며, 나파스와 함께 비현금 통합 결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베트남은 27만여 개의 카드 단말기가 보급되어 있어 시장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각 은행(베트남은 은행에서만 카드 발급)에서 각각의 단말기를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가맹점에 여러 은행의 단말기가 중복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결제 인프라가 중복 투자돼야 하는 구조로, 각 은행의 투자 리스크가 되어 공격적인 가맹점 확대의 제약 요인이 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여러 은행에서 단일 단말기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포스'가 기획되었다. 현재는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대도시 위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실정이다.

공동포스 네트워크는 베트남 전국에 다양하고 편리한 비현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프라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할인, 마일리지, 쿠폰 등 다양한 마케팅을 운영하는 기반을 제공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알리엑스는 2015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하노이 현지에 거점을 두고 공동포스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알리엑스는 2년여 간 베트남 중앙은행, 나파스 및 시중 은행 등 현지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하는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신뢰 구축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포스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게 되었다.

나파스와 알리엑스는 2018년 5월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동포스 인프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나카드는 알리엑스와의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본 사업 및 향후 베트남 내에서의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카드와 알리엑스는 지난 2015년에 해외 결제사업을 위한 '대형 금융기업과 결제 전문기업'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체결식에는 정수진 하나카드 대표이사, 나파스의 흥 레 큐 (Hung Le Q) 대표이사과 박병건 알리엑스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협약에 조인하였다.



나파스는 중앙은행과 주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 즉 스위칭 (Switching) 기업이다. 베트남 법률상 하나의 스위칭 기업만을 인정하고 있어 나파스가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기업이 된다. 나파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계약 및 협력 주체로서 새롭게 구축되는 결제인프라를 통해서 발생하는 결제정보의 스위칭 역할을 맡게 된다.

알리엑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의 계약 당사자로서 베트남 전국에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게 되며, 베트남 시장에 온라인,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국내 결제산업을 선도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드결제와 온라인, 모바일 결제 등 베트남 결제 산업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자 베트남 제일 교역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은 카드 가맹점 인프라의 부족으로 ATM에서 현금 인출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약 1억3천만장의 카드가 발급되었고, 사용액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70% 이상 성장하는 등 최근에 그 성장세가 가속되고 있어 향후 공동포스를 통하여 인프라가 확충될 때 그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 대중 음악 한류는 이미 오래 전부터 크게 일고 있고, 지난 1월 박항서 감독의 AFC U-23축구 준우승과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있다. 공동포스 사업을 통해 결제, 핀테크 분야에서의 한류가 한 차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매체	데일리 그리드
게재 날짜	2018-03-29
제목	국내 결제전문 IT 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공동포스 사업 참여

국내 결제전문 IT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공동포스 사업 참여

서광식 기자 | sun@sundog.kr

승인 2018.03.29



▲ 왼쪽부터 '나파스' Hung, Le Q 대표, '하나카드' 정수진 대표,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

하나카드와 함께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기업
나파스와 공동포스 사업 위한 MOU 체결

국내 결제 전문 IT기업인 알리엑스(대표 박병건)가
베트남 전국의 비현금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
포스 사업에 참여한다.

최근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 기업인 나파스
(NAPAS, 대표: Hung, Le Q) 및 하나카드(대표: 정
수진)와 이를 위한 MOU를 베트남 하노이 나파스 본
사에서 체결한 것이다.

본 MOU에는 오는 2018년 5월까지 나파스와 알리엑스간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위한 계약을 완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베트남 결제 시장 발전을 위한 3사간의 협력 추진 내용이 담겨 있다.

알리엑스는 본 체결을 통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베트남의 국가 결제 기간
망(공동포스 네트워크)을 구축하게 되며, 나파스와 함께 비현금 통합 결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
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베트남은 27만여 개의 카드 단말기가 보급되어 있어 시장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각 은행 (베트남은 은행에서만 카드 발급)에서 각각의 단말기를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가맹점에 여러 은행의 단말기가 중복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결제 인프라가 중복 투자돼야 하는 구조로, 각 은행의 투자 리스크가 되어 공격적인 가맹점 확대의 제약 요인이 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여러 은행에서 단일 단말기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포스'가 기획되었다. 현재는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대도시 위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실정이다.

공동포스 네트워크는 베트남 전국에 다양하고 편리한 비현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프라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할인, 마일리지, 쿠폰 등 다양한 마케팅을 운영하는 기반을 제공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알리엑스는 2015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하노이 현지에 거점을 두고 공동포스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알리엑스는 2년여 간 베트남 중앙은행, 나파스 및 시중 은행 등 현지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하는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신뢰 구축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포스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나파스와 알리엑스는 2018년 5월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동포스 인프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알리엑스와의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본 사업 및 향후 베트남 내에서의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카드와 알리엑스는 지난 2015년에 해외 결제사업을 위한 '대형 금융기업과 결제 전문기업'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체결식에는 정수진 하나카드 대표이사, 나파스의 흥 레 큐 (Hung Le Q) 대표이사과 박병건 알리엑스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협약에 조인하였다.

나파스는 중앙은행과 주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 즉 스위칭 (Switching) 기업이다. 베트남 법률상 하나의 스위칭 기업만을 인정하고 있어 나파스가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기업이 된다. 나파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계약 및 협력 주체로서 새롭게 구축되는 결제인프라를 통해서 발생하는 결제정보의 스위칭 역할을 맡게 된다.

알리엑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의 계약 당사자로서 베트남 전국에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게 되며, 베트남 시장에 온라인,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국내 결제산업을 선도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드결제와 온라인, 모바일 결제 등 베트남 결제 산업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자 베트남 제일 교역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은 카드 가맹점 인프라의 부족으로 ATM에서 현금 인출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약 1억3천만장의 카드가 발급되었고, 사용액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70%이상 성장하는 등 최근에 그 성장세가 가속되고 있어 향후 공동포스를 통하여 인프라가 확충될 때 그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 대중 음악 한류는 이미 오래 전부터 크게 알고 있고, 지난 1월 박항서 감독의 AFC U-23축구 준우승과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있다. 공동포스 사업을 통해 결제, 핀테크 분야에서의 한류가 한 차레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매체	일간 리더스경제
게재 날짜	2018-03-29
제목	국내 결제전문 IT 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MOU 체결

홈 > 뉴스 > 기업일반

국내 결제전문 IT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MOU 체결

이수호 기자 | goodnights1@leaders.kr

승인 2018.03.29



▲ 왼쪽부터 '나파스' Hung, Le Q 대표, '하나카드' 정수진 대표,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

하나카드와 함께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기업 나파스와 공동포스 사업 위한 MOU 체결

국내 결제 전문 IT기업인 알리엑스(대표 박병건)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베트남의 국가 결제 기간망(공동포스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최근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 기업인 나파스(NAPAS, 대표: Hung, Le Q) 및 하나카드(대표: 정수진)와 MOU를 체결한 것이다. 알리엑스는 베트남 하노이 나파스 본사에서 체결도된 이번 MOU로 베트남 전국의 비현금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포스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본 MOU에는 오는 2018년 5월까지 나파스와 알리엑스간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위한 계약을 완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베트남 결제 시장 발전을 위한 3사간의 협력 추진 내용이 담겨 있다.

알리엑스는 본 체결을 통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베트남의 국가 결제 기간망(공동포스 네트워크)을 구축하게 되며, 나파스와 함께 비현금 통합 결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베트남은 27만여 대의 카드 단말기가 보급되어 있어 시장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각 은행(베트남은 은행에서만 카드 발급)에서 각각의 단말기를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가맹점에 여러 은행의 단말기가 중복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결제 인프라가 중복 투자되어야 하는 구조로, 각 은행의 투자 리스크가 되어 공격적인 가맹점 확대의 제약 요인이 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여러 은행에서 단일 단말기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포스'가 기획되었다. 현재는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대도시 위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실정이다.

공동포스 네트워크는 베트남 전국에 다양하고 편리한 비현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프라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할인, 마일리지, 쿠폰 등 다양한 마케팅을 운영하는 기반을 제공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알리익스는 2015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하노이 현지에 거점을 두고 공동포스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알리익스는 2년여 간 베트남 중앙은행, 나파스 및 시중 은행 등 현지 주요 이해 당사자들에게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하는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신뢰 구축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포스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게 되었다.

나파스와 알리익스는 2018년 5월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동포스 인프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나카드는 알리익스와의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본 사업 및 향후 베트남 내에서의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카드와 알리익스는 지난 2015년에 해외 결제사업을 위한 '대형 금융기업과 결제 전문기업'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체결식에는 정수진 하나카드 대표이사, 나파스의 흥 레 큐 (Hung Le Q) 대표이사과 박병건 알리익스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협약에 조인하였다.

나파스는 중앙은행과 주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 즉 스위칭 (Switching) 기업이다. 베트남 법률상 하나의 스위칭 기업만을 인정하고 있어 나파스가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기업이 된다. 나파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계약 및 협력 주체로서 새롭게 구축되는 결제인프라를 통해서 발생하는 결제정보의 스위칭 역할을 맡게 된다.

알리익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의 계약 당사자로서 베트남 전국에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게 되며, 베트남 시장에 온라인,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국내 결제산업을 선도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드결제와 온라인, 모바일 결제 등 베트남 결제 산업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자 베트남 제일 교역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은 카드 가맹점 인프라의 부족으로 ATM에서 현금 인출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약 1억3천만장의 카드가 발급되었고, 사용액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70%이상 성장하는 등 최근엔 그 성장세가 가속되고 있어 향후 공동포스를 통하여 인프라가 확충될 때 그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 대중 음악 한류는 이미 오래 전부터 크게 일고 있고, 지난 1월 박항서 감독의 AFC U-23축구 준우승과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있다. 공동포스 사업을 통해 결제, 핀테크 분야에서의 한류가 한 차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매체	데일리 시큐
게재 날짜	2018-03-29
제목	결제전문 IT 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결제전문 IT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하나카드와 함께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기업 나파스와 공동포스 사업 위한 MOU 체결

박수빈 기자 jywoo@dailysecu.com 2018년 03월 29일 목요일



▲ 왼쪽부터 '나파스' Hung, Le Q 대표, '하나카드' 정수진 대표,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

국내 결제 전문 IT기업인 알리엑스(대표 박병건)가 최근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 기업인 나파스(NAPAS, 대표: Hung, Le Q) 및 하나카드(대표: 정수진)와 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알리엑스는 베트남 하노이 나파스 본사에서 체결도된 이번 MOU로 베트남 전국의 비현금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포스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본 MOU에는 오는 2018년 5월까지 나파스와 알리엑스간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위한 계약을 완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베트남 결제 시장 발전을 위한 3사간의 협력 추진 내용이 담겨 있다.

알리엑스는 본 체결을 통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베트남의 국가 결제 기간망(공동포스 네트워크)을 구축하게 되며, 나파스와 함께 비현금 통합 결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베트남은 27만여 대의 카드 단말기가 보급되어 있어 시장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각 은행(베트남은 은행에서만 카드 발급)에서 각각의 단말기를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가맹점에 여러 은행의 단말기가 중복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결제 인프라가 중복 투자돼야 하는 구조로, 각 은행의 투자 리스크가 되어 공격적인 가맹점 확대의 제약 요인이 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여러 은행에서 단일 단말기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포스'가 기획되었다. 현재는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대도시 위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실정이다.

공동포스 네트워크는 베트남 전국에 다양하고 편리한 비현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프라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할인·마일리지·쿠폰 등 다양한 마케팅을 운영하는 기반을 제공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알리엑스는 2015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하노이 현지에 거점을 두고 공동포스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알리엑스는 2년여 간 베트남 중앙은행, 나파스 및 시중 은행 등 현지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감을 구하는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신뢰 구축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포스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게 되었다.

나파스와 알리엑스는 2018년 5월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동포스 인프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나카드는 알리엑스와의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본 사업 및 향후 베트남 내에서의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카드와 알리엑스는 지난 2015년에 해외 결제사업을 위한 '대형 금융기업과 결제 전문기업'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체결식에는 정수진 하나카드 대표이사, 나파스의 흥 레 큐 (Hung Le Q) 대표이사, 박병건 알리엑스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협약에 조인하였다. 나파스는 중앙은행과 주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 즉 스위칭 (Switching) 기업이다. 베트남 법률상 하나의 스위칭 기업만을 인정하고 있어 나파스가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기업이 된다. 나파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계약 및 협력 주체로서 새롭게 구축되는 결제인프라를 통해서 발생하는 결제정보의 스위칭 역할을 맡게 된다.

알리엑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의 계약 당사자로서 베트남 전국에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게 되며, 베트남 시장에 온라인,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국내 결제산업을 선도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드결제와 온라인, 모바일 결제 등 베트남 결제 산업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자 베트남 제일 교역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은 카드 가맹점 인프라의 부족으로 ATM에서 현금 인출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약 1억3천만장의 카드가 발급되었고, 사용액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70%이상 성장하는 등 최근에 그 성장세가 가속되고 있어 향후 공동포스를 통하여 인프라가 확충될 때 그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 대중 음악 한류는 이미 오래 전부터 크게 일고 있고, 지난 1월 박항서 감독의 AFC U-23축구 준우승과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있다. 공동포스 사업을 통해 결제, 핀테크 분야에서의 한류가 한 차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시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체	인터페이스 뉴스
게재 날짜	2018-03-30
제목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미량재 기자 승인 2018.03.30 09:03 댓글 0

국내 결제 전문 IT기업 알리엑스가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 기업인 나파스(NAPAS) 및 하나카드와 베트남 전국의 비현금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포스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베트남 하노이 나파스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는 오는 2018년 5월까지 나파스와 알리엑스간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위한 계약을 완료하는 내용을 포함해 베트남 결제 시장 발전을 위한 3사간의 협력 추진 내용이 담겨있다.

알리엑스는 이번 체결을 통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베트남의 국가 결제 기간망(공동포스 네트워크)을 구축하게 되며 나파스와 함께 비현금 통합 결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베트남은 27만여대의 카드 단말기가 보급돼 있어 시장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각 은행(베트남은 은행에서만 카드 발급)에서 각각의 단말기를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가맹점에 여러 은행의 단말기가 중복 설치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왼쪽부터 '나파스' 황 레 큐 대표, '하나카드' 정수진 대표,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 <제공: 알리엑스>

이는 결제 인프라가 중복 투자돼야 하는 구조로 각 은행의 투자 리스크가 돼 공격적인 가맹점 확대의 제약 요인이 돼 왔다. 이런 이유로 여러 은행에서 단일 단말기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포스'가 기획됐다. 현재는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대도시 위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실정이다.

공동포스 네트워크는 베트남 전국에 다양하고 편리한 비현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프라 역할 뿐 아니라 기업들이 할인, 마일리지, 쿠폰 등 다양한 마케팅을 운영하는 기반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알리엑스는 2015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하노이 현지에 거점을 두고 공동포스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알리엑스는 2년여 간 베트남 중앙은행, 나파스 및 시중 은행 등 현지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감을 구하는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신뢰 구축과 협력을 통해 공동포스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게 됐다.

나파스와 알리엑스는 2018년 5월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동포스 인프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나카드는 알리엑스와의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이번 사업 및 향후 베트남 내에서의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카드와 알리엑스는 지난 2015년에 해외 결제사업을 위한 '대형 금융기업과 결제 전문기업'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체결식에는 정수진 하나카드 대표이사, 나파스의 흥 레 큐(Hung Le Q) 대표이사 와 박병건 알리엑스 대표이사가 참석해 협약에 조인했다.

나파스는 중앙은행과 주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 즉 스위칭 (Switching) 기업이다. 베트남 법률상 하나의 스위칭 기업만을 인정하고 있어 나파스가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기업이 된다.

나파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계약 및 협력 주체로서 새롭게 구축되는 결제인프라를 통해서 발생하는 결제정보의 스위칭 역할을 맡게 된다.

알리엑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의 계약 당사자로서 베트남 전국에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게 되며 베트남 시장에 온라인,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국내 결제산업을 선도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드결제와 온라인, 모바일 결제 등 베트남 결제 산업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자 베트남 제일 교역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은 카드 가맹점 인프라의 부족으로 ATM에서 현금 인출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약 1억3000만장의 카드가 발급됐고 사용액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70%이상 성장하는 등 최근에 그 성장세가 가속되고 있어 향후 공동포스를 통해 인프라가 확충될 때 그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 대중 음악 한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크게 일고 있고 지난 1월 박항서 감독의 AFC U-23축구 준우승과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있다. 공동포스 사업을 통해 결제, 핀테크 분야에서의 한류가 한 차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재 기자 voxpop@internews.kr

<저작권자 © 인터페이스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체	올포침
게재 날짜	2018-03-30
제목	국내 IT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국내 IT기업 알리엑스, 베트남 국가결제 인프라 구축

*알리엑스, 하나카드와 함께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기업 나파스와
공동포스 사업을 위한 MOU체결*

*알리엑스, 2년여의 베트남 현지화 노력 결실 맺어
하나카드, 알리엑스, 대기업-전문기업 상생 모델 해외서 성과*



<왼쪽부터 '나파스' Hung, Le Q 대표, '하나카드' 정수진 대표,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

국내 결제 전문 IT기업인 알리엑스(대표: 박병건)는 베트남 국영 독점 결제 중계 기업인 나파스(NAPAS, 대표: Hung, Le Q) 및 하나카드(대표:정수진)와 베트남 전국의 비현금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포스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베트남 하노이 나파스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MOU에는 오는 2018년 5월까지 나파스와 알리엑스간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위한 계약을 완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베트남 결제 시장 발전을 위한 3사간의 협력 추진 내용이 담겨있다. 알리엑스는 본 체결을 통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베트남의 국가 결제 기간망(공동포스 네트워크)을 구축하게 되며, 나파스와 함께 비현금 통합 결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베트남은 27만여대의 카드 단말기가 보급되어 있어 시장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각 은행(베트남은 은행에서만 카드 발급)에서 각각의 단말기를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가맹점에 여러 은행의 단말기가 중복 설치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결제 인프라가 중복 투자되어야 하는 구조로, 각 은행의 투자 리스크가 되어 공격적인 가맹점 확대의 제약 요인이 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여러 은행에서 단일 단말기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포스'가 기획되었다. 현재는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대도시 위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실정이다.

공동포스 네트워크는 베트남 전국에 다양하고 편리한 비현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프라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할인, 마일리지, 쿠폰 등 다양한 마케팅을 운영하는 기반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알리엑스는 2015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하노이 현지에 거점을 두고 공동포스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알리엑스는 2년여 간 베트남 중앙은행, 나파스 및 시중 은행 등 현지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감을 구하는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신뢰 구축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포스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게 되었다.

나파스와 알리엑스는 2018년 5월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동포스 인프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나카드는 알리엑스와의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본 사업 및 향후 베트남 내에서의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카드와 알리엑스는 지난 2015년에 해외 결제사업을 위한 '대형 금융기업과 결제 전문기업'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체결식에는 정수진 하나카드 대표이사, 나파스의 흥 레 큐 (Hung Le Q) 대표이사과 박병건 알리엑스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협약에 조인하였다.

나파스는 중앙은행과 주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 즉 스위칭 (Switching) 기업이다. 베트남 법률상 하나의 스위칭 기업만을 인정하고 있어 나파스가 베트남 유일의 승인 중계기업이 된다. 나파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계약 및 협력 주체로서 새롭게 구축되는 결제인프라를 통해서 발생하는 결제정보의 스위칭 역할을 맡게 된다.

알리엑스는 이번 공동포스 사업의 계약 당사자로서 베트남 전국에 공동포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게 되며, 베트남 시장에 온라인,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국내 결제산업을 선도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드결제와 온라인, 모바일 결제 등 베트남 결제 산업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자 베트남 제일 교역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은 카드 가맹점 인프라의 부족으로 ATM에서 현금 인출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약 1억3천만장의 카드가 발급 되었고, 사용액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70%이상 성장하는 등 최근에 그 성장세가 가속되고 있어 향후 공동포스를 통하여 인프라가 확충될 때 그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 대중 음악 한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크게 일고 있고, 지난 1월 박항서 감독의 AFC U-23축구 준우승과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있다. 공동포스 사업을 통해 결제, 핀테크 분야에서의 한류가 한 차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 기자 : 율포집
- ▶ 관련 URL : <http://www.alli-ex.com/>
- ▶ 기사 입력시간 : 2018-03-30